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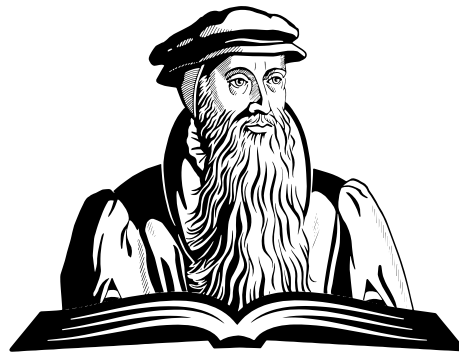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14: 다윗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14

## 다윗

### 강의 주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가오는 씨앗의 약속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다윗의 미래 아들은 왕의 왕으로서 다윗보다 더 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 본문: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사도행전 2:29, 30).

## 강의 스크립트 14

어린이들은 얇고 투명한 종이를 위에다 대고 그 아래 나타난 선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 얇은 종이를 그림 위에 둘 때 그 아래에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사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베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그 밑에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종 다윗의 마음과 삶에 자신의 성품의 흔적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전진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최악된 것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까?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구속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되며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미래의 실재를 지시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룧기에서 우리는 한 왕국이 부상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몇 가지 요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그들의 표준이 되는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그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반역적인지를 보여주었고 한 세대에 주어진 일시적인 사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룧기는 다윗의 조상이 친족 구속의 사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은 구속하기 위해

서 다스립니다. 시편 72:14에서 하나님의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이다”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에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회개와 의의 설교자로서 그 길을 예비했으며 태어날 수 없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2:10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에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모두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들의 직분은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메시아적 왕에 대한 기대감은 한참 뒤로 가서 창세기 4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 기대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생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도 사사들에게서 다윗의 가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도 이제는 통일된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서의 시작으로 가까이 갈수록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왕직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죄악된 것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12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7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2:19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구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10에서 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17장을 보면 한 예로 율법 그 자체도 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오실 한 왕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삼상8:5)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삼상8:6) 문제는 왕직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니라 왕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닮고, 그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와 안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공되는 안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인의 왕들조차도 한 번도 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주어지는 안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다윗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 한 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 곧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다윗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룻기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다윗의 족보를 제공하고 그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베레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창녀인 척 했던 그의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불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의 족보는 다윗에게 상당 부분의 이방인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피의 십육분의 삼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가지게 된 라합과 신앙을 가진 모압여인 룻이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첫장인 마태복음 1장을 펼치고 이 동일한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셨을 때 사무엘상 13:14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 본문을 취한 다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던 때로 가면 사무엘상 16: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노년이 되어서까지 언제나 목자의 마음과 전사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0:1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와 병렬되는 것으로서 사무엘하 5:2은 다윗에 대해 이르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고 합니다. 다윗에게서 목자와 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보입니까? 열왕기상 9:4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열왕기상 14:8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윗의 공적인 죄악도 알고 사울의 죄는 다윗에 비하면 덜 심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처음 네 계명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범했습니다. 시내산에 대한 강의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돌판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돌판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시편51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은 극심한 깨어짐과 회개와 새로운 순종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좋은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펼쳐지는 은혜언약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규칙을 세우시는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인의 후손은 왕직을 가진 후손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다윗이 국가의 남과 북이 만나는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이자 왕국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입증되듯이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21장에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갈망했고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왕직과 곧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로 합병되기 위한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7:1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안전한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가 오게 될 것을 그림자의 형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시아적인 보좌를 하나님의 영원한 주인 되심과 하나로 병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28:18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로 섬기실 것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 열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나라가 전진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언약과 다윗의 확실한 자비에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이는 은혜언약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을 믿음과 회개와 새로운 순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언약의 핵심구절은 사무엘하 7:14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1:5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역사를 보면 다윗의 가문의 통치는 결국에는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포함된 큰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상29:23에 있는 솔로몬의 대관식에 대한 말씀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윗의 가문의 보좌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지상에 있는 상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1:3)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서 구약의 신약적 성취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요한계시록22:16)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속적으로 예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11:1,2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 왕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신약은 승천하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행2:29)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행2:30)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72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리키며 그분의 나라에서 바로 그 통치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분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시72:8) 다스릴 것입니다. 17-19절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황홀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를 향해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다윗의 왕국의 확장보다 더 높고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처음 약속된 땅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소요리문답26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위로 그 이상입니다. 모든 현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곧 이 땅의 모든 나라보다 더 영원하게 있을 그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고 모든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1장과 3장 등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경험 및 특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으켜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준비와 모든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율법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이것을 또 그리스도인과 연결합니다. 이 구절들은 다른 남은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현대 신자들에게도 정말로 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미래에 있게 될 다윗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남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역할입니다.